

대설 한파

고립과 정체, 기온 강하에 따른 보온 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합니다.
가능하면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후,
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
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.

고립·정체 시에는 불안감이 고조되어 패닉상태가 올 수 있으니 차량 안에서
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의 재난문자에 따라 행동합니다.
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경우, 유아·노인·장애인·환자들의 반응에
더욱 관심을 가집니다.

